



미국: Peace Mission P. O. Box 5537 Lynnwood, WA 98086-5537 (425) 742-5577
평화 선교회: peacemission7@hotmail.com 한국: 박노희 집사 010-4758-1605
선교사: 이태형, 이줄리 philipthlee@gmail.com www.facebook.com/pm.moldova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사 2:3)

2020 년 새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소명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고 계신지요? 올 해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동역자
모든 분들과 함께 몰도바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예배 중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다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몰도바의 국가법은 18 세 이하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 에게
종교 이야기는 부모가 함께 있을 때에나 부모의 동의하에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위의 아이들도 혼자서는 주일
학교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문화에 젖은 정교회 외의
다른 종교, 개신교까지도 이단시하는 부모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역으로

어린이들을 통해 부모들의 경직된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 사역이 절실함을 피부로 체험합니다. 이 어려운
사역을 지혜롭게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지난 연말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초청 예배를 온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
대부분이 함께 신앙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기도의 제목이 가족 구원
이었는데,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들을 변화 시키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의 사진은 가정교회 모임입니다. 매 주일 한번씩 목자의 집에서 정성들여
음식을 장만하여 목원들이 믿지않는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하여 교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자신의 목장으로 초청하여 성도의
교제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위의 두 자매 외에도 연말
초청 예배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가정교회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2020 년, 주님안에서 동역자님들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살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몰도바 동역자, 이태형, 줄리 선교사 올림.